

PVA도포 종이를 응용한 미술의상 연구

-종이 조형 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의상디자인 전공 이 경 진

경원전문대학 의상디자인과 교수 김 정 희*

· 목 차 ·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작품제작
- IV. 결론 및 제언

<요 약>

현대는 다양한 미디어들이 등장하여 종이 자체가 인쇄매체의 총아로서 지녔던 기존의 위력은 점차 약화되었으나 조형예술 분야에서 종이 지닌 재질감을 비롯한 여러 장점을 새롭게 재인식하여 조형적 표현 수단으로서 활발하게 활용 되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종이조형 기법을 이용하여 의상 소재로서의 종이의 기능성과 심미성을 강화하고 독특한 실루엣과 형태를 강조, 응용하였다. 또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표현하여 예술 공연 및 의상이미지를 형상화 한 디스플레이용으로 이용 가능한 미술의상을 창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에 종이조형의 역사를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특성 및 기법과 더불어 종이의상의 발전 과정과 종이를 소재로 한 현대의상을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이조형 기법은 변화무쌍한 조형성으로 인해 미술의상에 다양한 형태를 부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종이의 뽀뽀한 성질은 주름과 커팅 기법을 통해 입체적 조형미를 부여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독특한 재질감은 중첩의 묘미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종이의 부족한 내구성을 보완하기 위해 PVA 접착제를 사용하여 종이간의 결합을 증대시키고,

더불어 조형소재로서의 견고성과 착용가능성을 증가시켰다.

넷째, 종이조형 기법의 다양한 형태는 인체와 연관하여 새롭고 독특한 실루엣을 형성함으로 인해, 평면에서부터 입체조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며, 이를 미술의상에 응용함으로써 창조적인 조형감과 재질감을 구현할 수 있다.

다섯째, 종이의상은 섬유소재에 비하여 잘 찢어지고 물에 약한 단점이 있으나 일회성의 퍼포먼스나 공연의상으로는 사용 가능하며, 빛을 투과하는 종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업공간의 장식이나 디스플레이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종이의 가장 큰 단점인 내구성 부족의 한계를 PVA도포를 이용하여 극복하고, 종이조형 기법에 의한 미술의상의 독특한 조형미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더욱더 다양한 종이소재와 종이조형기법을 접목시킨 복합적인 표현기법의 연구와 실험이 계속되고, 이를 통하여 미술의상에 있어서 예술성이 증대되기를 바란다.

I. 서론

복식조형은 현대에 이르러 더욱더 독창적인 창조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현대의상에 서의 재료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실험들이 새로운 표현기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에 종이가 지닌 다양한 성질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재질감을 비롯한 여러 장점을 새롭게 재인식하여 평면적인 종이를 입체적인 조형물로 변형시키는 시도를 통해 독특한 조형언어로 표출시켜 의상의 심미적 기능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이 자체의 독특한 재질감과 조형성을 살려 새로운 의상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조명하고 나아가 조형예술로서의 영역을 확대시켜 공연 예술과 실내 장식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미술의상 제시에 그 목적을 둔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이 조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및 응용 방법은 문헌 및 사진 자료 등 선행된 이론적인 연구를 토대로 하여 연구하고 그에 따른 종이 조형기법 중 홀치기 염색의 일종으로 시보리(Shibori), 플랭기(Plangi), 춘리(Chunri)등으로 불리는 보마키염(Bomaki Shibori)과 PVA도포를 이용한 파피에 마쉐(papier mache)의 두 가지 기법을 중심으로 하여 종이조형의 독특한 질감을 의상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른 소재로는 유산지와 트레팔지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형태미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보마키염(Bomaki Shibori)은 유리병과 PVC파이프 등의 먼이 빼 끄러운종이를 이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종이의 역사와 예술사적 의의

일반적으로 종이는 자연에서 생성된 섬유질의 얇은 조직을 인공적으로 결합시켜 만들어낸 재료이다. 이를 구성하는 섬유질은 2차원의 평면적인 특성을 지니지만 활용 여부에 따라 부조나 3차원의 입체적인 효과까지 다양한 변형을 창출해내는 소재라 할 수 있다. 인지의 발달과 생활공간의 확대에 따라 인간은 공동생활을 형성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상호교류의 수단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생활환경의 광역화와 더불어 의사전달, 언어표시의 대응으로서 약속된 그림이나 상형문자를 운반할 도구가 필요하게 된 당위성으로부터 종이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¹⁾

기록상으로 나타난 최초의 종이는 서기 105년 중국 후한(後漢)의 화제(和帝) 원년(元年)에 의해 발명된 것이 공식적인 최초의 종으로 받아 들여졌으며, 종이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형짚, 나무, 목재 등 섬유에서 나온 조각이나 잎으로 만든 물질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는 A.D 105년 중국 후한의 채륜(蔡倫)에 의해 발명된 것으로 고급의 식물성 섬유를 원료로 하였다.²⁾ 채륜(蔡倫)이 죽은 후에 중국 전 지역을 비롯하여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 서방 및 한국, 일본 등지의 동방으로 급속히 전파되었다.

A.D 300년경에는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종이가 사용되었으며 서사재료 뿐만 아니라 미적인 표현재료로서 각별히 사용되었다. A.D 500년경에는 우리나라에 전파되어 고구려시대의 승려 담징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 지게 되었다.³⁾ 고구려의 명승 담징은 공예분야에도 뛰어난 기량을 갖추었던 사람으로 서기 610년 고구려 영양왕 21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제지기술을 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낙랑시대에 종이를 사용하고 있었음이 기록에 나타나 있고, 이후로 공예분야에도 종이가 쓰였는데 그 예로 서적, 문서, 통화, 그림 등 서화적인 요소에서 활용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실생활에 사용된 것들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 발명된 종이가 서양에 전래된 것은 그로부터 1000년 후의 오랜 시간이었으나 서양의 급속한 과학기술은 제지법의 진보를 촉진 시켜 1450년에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을 계기로 종이의 사용은 대중화, 보편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종이는 표현욕구의 행위 의장과 미술양식의 보편적 소재로서 활발히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조형언어를 표현하는 재료로 가장 친근하게 인식되고 있다. 또한 종이 작업의 특성과 종이의 가역성을 적용한 표면형태의 다양함은 평면, 부조, 혹은 입체 형태나 타 재료와의 혼합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기법 즉 꼬기, 엮기, 붙이기, 칠하기, 두드리는 기법을 통해 다양한 작품이 제작되었다.⁴⁾

1) 어홍규(1973), 「韓國史 小考」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p.29

2) E.C.Scott(1999) 「Paper Making」 런던Lorentz Books. p.8

3) 어홍규(1973), 「韓國史 小考」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p.29

4) 이주실(1999), 「수제지를 응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 : 임베딩(Embeding) 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

이러한 다양한 시도는 1910년 이후의 입체파 화가들에 의해 새롭게 등장하였다. 현대 예술의 장(章)에서 종이(紙)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데는 입체주의, 구성주의, 미래주의, 다다, 초현실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예술사조의 전개로 인한 실험정신의 역할이 크다. 이러한 실험의 한 예로 콜라주(collage)의 사용과 오브제(object) 미술의 탄생으로 종이는 이미지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부각되었고 사용이 확대되었다.⁵⁾

20세기 초 큐비즘(cubism)을 기점으로 다다이즘(Dadaism), 초현실주의(Surrealism)시대를 거치면서 빠비에 콜레(Papier Colle)와 포토 몽타주(Photo Montage)등으로 등장하였고, 2차대전 이후 네오 다다이즘(Neo Dadaism)에서는 앗상블라주(Assemblage)와 컴바인 페인팅(Combine Painting)이 등장하였으며, 팝 아트(Pop Art)에서도 콜라주는 회화에 도입되어 발달하였다.⁶⁾ 한편, 순수예술과 장식예술의 전통적인 한계를 없애고 건축, 회화, 직물 등 모든 예술적 창조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1916년 월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가 바우하우스(BAUHAUS)를 설립 하므로써 예술가들은 독립된 작가로서만이 아니라 많은 장르의 예술을 통합한 폭넓은 조형 실험가로서의 정신을 갖게 되었다. 현대디자인 교육의 기초를 마련한 바우하우스에서는 창조적 미술교육으로 조형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창조성을 신장시키고 조형적 미술교육에 의의를 두고 기초디자인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관찰력을 길러 용구와 기능적 특질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힘을 기르며 표현의 범위를 넓혀 다각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대상의 형과 색의 재료, 재질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여 조형적 감각을 터득시키고자 하였다.⁷⁾

1935년 전후로는 종이조각(Paper Sculpture)이 유행하여 상업미술 분야에서 성행하였는데 1960년 경 이후 서구에서 점진적으로 입체조형의 실험재료로써 종이의 구조적인 조형 가능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어 여러 형태의 실험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1960년대(Object)회화의 복귀와 70년대의 미니멀 아트(Minimal Art) 및 개념미술(Conceptual Art)의 출현으로 피동적인 표현 재료에 불과했던 종이(紙)가 미술작품의 중요한 소재로 바뀌게 되었다. 더불어 다른 재료와의 과감한 혼용으로 종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졌다.

1970년대 이후 종이는 현대예술의 탈출구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발전되었고 현대에 이르러 종이의잠재적 기능에 대한 실험과 다양한 표현양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종이의 미적 발견과 함께 예술적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각 분야의 조형예술과도 관련을 맺게 되었다.⁸⁾

위 논문(미간행) p.35-36

5) 이영구(1987), 「환경예술의 조형의 미」 산업미술. 효성여자대학교 p.4

6) 노윤선(1994), 「콜라주(Collage)를 응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p.23

7) 한스 M. 빙글러(1962), 「바우하우스」 김윤수(역) 서울: 미진사 p.430

8) 김선영(1994), 「종이접기를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7-8

2. 종이조형의 일반적 고찰

가. 조형 매재(賣材)로서 종이의 특성 및 PVA

현대의 종이 조형은 시각성과 촉각성이 요구 되어 지는데, 양자는 기존의 종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산되기도 하고 원료를 가공해서 수제종이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발휘 된다. 또한 대부분의 조형 매재가 특정한 형식의 작업에만 가능하도록 고정되는데 비해 종이는 어떠한 종류의 작업을 실행하더라도 손쉽게 가공되어 기법의 적용을 수월하게 해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부드러운 종이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2차원 또는 3차원적 표현이 자유롭다.

PVA(Poly Vinyl Alcohol)란 합성 고분자 중 수용성의 특이한 성질을 가진 백색분말로 강인성, 평활성, 교착성, 침투성, 저장성이 좋아서 소수성이 큰 섬유에 불가결한 호제이다. 비닐론의 원료로서 30%가 사용되며 친수성 섬유인 레이온, 소수성 섬유인 아세테이트, 나일론, 테플론 등에도 사용된다. 제지 공업의 경우 PVA수용액을 종이의 표면에 코팅하면 종이의 표면 특성, 예를 들면 평활성, 마모성, 내유성, 통기성, 인쇄적성이 개선되며 종이용 접착제로서도 종래의 전분 대신에 이용되고 있다.

나. 종이 조형 기법

A. 접기(Paper Folding)

모든 종이 조형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동양에서 만들어 지기 시작한 것은 1200년경이며 무엇인가를 기원하거나 의식에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9세기 후반에 들어 서양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양문화의 상징적 요소가 대부분 사라졌으나 1956년 미국의 작가 샘 랜들렛(Sam Randlett)에 의해 「종이접기」라는 명칭으로 소개되고, 이 후 동서양을 막론하고 무수한 디자인이 여러 가지의 양식으로 창작되었다.

B. 파피에 마쎬(Papier Mache)

우리말로로는 ‘종이붙이기’에 해당하며 「진흙처럼 질은」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로 Papier-mache가 원어이다.⁹⁾ 겹쳐 붙이기는 파피에 마쎬의 두 가지 기법 중에서도 일반적인 것으로 종이를 여러 겹으로 붙이는 기법이다. ‘주물’이라고 불리는 틀을 이용하여 풀칠한 종이를 여러 겹으로 붙여 나가는 것으로 기본적인 순서는 아주 간단하나 완성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C. 엮기(Paper Weaving)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가늘고 긴 종이를 서로 꿰매듯이 엮어 가방이나 방석에서부터 실용성이 뛰어난 옷까지 만들었다. 1960년대에는 섬유회사가 새로운 비합섬 섬유를 자치하며 종이를 엮은

9) Parl Jackson(1995), 「종이조형기법 백과」 서울 : 종이나라 p.74-75

직물을 팔았으나 보급되지는 않았다. 종이 엮기는 우선 끈 다음에 엮는 것이 옛 방식이었으나 가늘고 긴 종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줄의 수를 수학의 순열에 따라 규칙적으로 배열하면 복잡하고 정교한 패턴이 되기도 한다.

D. 펄핑(Pulping)

파피에 마쉼(Papier Mache)의 겹쳐 붙이는 기법을 대신한 것으로 펄핑은 종이를 붙이는 대신에 틀에 넣어 압축하고, 그 위에 겹쳐 형태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두께를 내기에는 겹쳐 붙이는 기법 보다 훨씬 빠르고 직물 풍으로 모양이나 장식을 할 수 있다.

E. 감기(Paper Quilling)

퀸링(Quilling)이란, 가늘고 긴 종이를 말아 대지에 붙이고 추상적 또는 조형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다. 기원은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가나 미술품으로서 인정받게 된 것은 15세기 영국에서이다. 교회의 장식용으로 쓰인 후 17세기가 되어 유목민들의 오락으로 부활하였으며 기법은 가늘고 긴 종이를 말아 소용돌이 형태, 별 형태, 틀립, S자 형이나 곤충의 뿔, 그 외 누르거나 접기 선을 표시하여 20여 종의 기본 적인 형태로 접는다.

F. 데꾸빠쥬(Decoupage)

데꾸빠쥬란「잘라내기」라는 의미의 프랑스어로, 18세기 프랑스 궁전 여성들의 오락으로 발달하였다. 당시 유행하던 동양의 옷칠 상자와 비슷하고 프린트한 종이에서 무늬를 잘라내어 나무상자를 장식하는데 이용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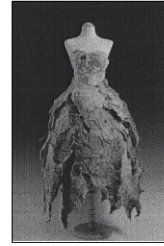
G. 자르기(Paper Cutting)

기원전 207년경으로 올라가는 이 기법은 중국 북부에서 발견되었으며 그 이외의 나라에서도 내려져 오는데 일본을 처음으로 멕시코, 폴란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외에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주처럼 네덜란드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 모든 기본이 되는 종이의 모티브를 이용하는 것에서 시작한 데꾸파쥬와 다르게 자르는 그림에서는 전통적인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독특한 디자인을 고안하고 있다.

3. 종이조형과 미술의상

종이를 표현 매재로 하는 예술은 조형예술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의 종이조형은 표현 매재의 한계를 과감히 확대시키고자 하는 예술 의지와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확대되어 예술 의상에서도 많은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

미술의상은 1960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되어 현재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섬유예술의 한 분야로 처음에는 ‘웨어러블 아트(Wearable Art)’, ‘바디 워크(Body Work)’, ‘바디 아트(Body Art)’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 오다가 1938년 미국공예미술관에서 ‘아트 투 웨어(Art to Wear)’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미술의상, 예술 의상 또는 의상예술 등으로 불리고 있다.



<그림 1>
이주실(1999)
“빈들에 서서”

<그림1>은 수제지만의 독특한 감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이주실은 임베딩 기법과 뗏클엣지기법을 이용하여 나뭇잎 모양의 단위 형태를 있는 원피스로 시각적 중첩과 자연의 원시적인 감각을 추구하였다.

그 외 종이를 이용한 예술의상에는 주로 한지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한지를 염색한 후 배접한 기법, 한지와 솜의 응용, 닥섬유를 이용하는 방법등 이는의상의 조각적인 형태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종이조형기법을 응용한 현대의상 디자인

20세기의 현대의상은 일반 조형예술의 특성을 공유한다는 면에서 현대 조형예술의 새로운 기류인 종이조형의 전개와 더불어 종이소재를 응용한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현대패션에 있어서 소재개발과 창의적인 표현기법은 시대적인 요구로서 받아 들여졌으며, 최근의 디자이너들은 독창적인 조형미를 창출하고, 자신의 이미지 부각과 예술적인 표현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자 소재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 하고 있다. 특히, 고도로 발달된 기술로 인한 신소재의 개발과 기존의 소재에 대한 재해석, 전통적인 기법을 가미한 수공예적인 직물의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림2>Yohji Yamamoto의 작품은 사각형의 단위 형태들을 서로 엮갈리게 겹쳐놓고 각각의 유니트를 한번씩 접어놓음으로써 부조적 입체감을 주었다. <그림3>은 이세이 미야케의 작품으로 소재를 비틀어 주름의 변형을 준 크링클(Crinkle)기법으로 제작된 의상이다. <그림4>는 자르기 기법을 이용한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림 2> Yohji Yamamoto
(1991) Collection F/W



<그림 3> Issey Miyake
(2000~2001) Collection F/W



<그림 4> Alexander McQueen
(2001) Collection F/W

이외에 Junko Koshino는 일차적 주름접기를 변형한 것으로 목선 부분과 어깨부분에 아코디언 접기를 이용하여 입체감을 표현 하였으며 Maurizio Galante의 작품은 아코디언 접기를 소매 끝에 이용해 나팔모양으로 구조화 시켰다.

III. 작품제작

1. 제작의도 및 방법

본 연구는 종이의 의상재료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더불어 종이 그 자체의 독특한 재질과 조형성을 살려 새로운 의상 소재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른 방법으로 복식조형의 소재로서 기존의 종이를 이용하여 염색공예 기법 중 보마키(Bomaki Shibori)기법을 응용하였고 자연스러운 형태와 공간감을 갖는 접기 기법을 중심으로 PVA 접착제 도포를 이용한 파피에 마쎬 기법을 혼용하여 수공으로 제작하였다. 주재료로 티슈페이퍼와 트레팔지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얇고 반투명의 질감을 갖는 대신에 내구성이 부족하여 찢어지기 쉬운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얇은 종이에 PVA접착제를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다시 종이를 겹쳐 붙이는 방법을 반복했다. 이때 PVA접착제는 물이나 밀가루풀을 첨가 하여 희석하여 사용하는데 실험 결과 두꺼운 표면 질감을 위해서 2:1의 혼용률이 적합하며 가벼운 형태감과 코팅 효과를 위해서는 1:2 혹은 1:5의 비율이 적합하다. 채색은 섬세한 종이의 재질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 종이 자체의 색상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밝고 경쾌한 색상을 주로 사용 하여 작품에 따라 아크릴, 수채화, 유화 물감등을 사용하여 원피스 드레스 5점, 재킷 4점, 스커트 5점의 아이템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1> 접기와 커팅기법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며, 자유롭게 구겨 접는 기법의 사용으로 트레팔지 특유의 파라핀 크랙이 나타난다.



<작품 2> 유산지를 보마키 염색 기법으로 염색하여 자연스러운 입체감이 생기도록 구긴 후 제작하였다.



<작품 3> 보마키 염색법을 이용한 주름접기와 파피에 마쎬 기법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작품 4> 파피에 마쎬 기법과 종이접기 기법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미술의상이 조형예술의 표현 매체로 인식되면서 심미적, 조형적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현대조형예술의 새로운 기류인 종이 조형과의 접목이 시도되고 있다. 더불어 종이의 공예적 특성과 재질의 독특함이 현대의상 디자인 및 작품 소재로서 이용되고, 형태표현 측면에서는 종이조형 기법을 비롯한 여러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종이조형 기법을 의상에 응용하여 조형적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미술의상 표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종이조형의 다양한 형태는 창조적인 조형성과 표면질감, 다양한 형태미와 공간감을 부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주름과 컷팅기법의 사용을 통해 입체적 조형미로 구현될 수 있으며, 중첩의 묘미를 살린 독특한 재질감의 표현이 가능하였다. 셋째, 종이의 부족한 내구성을 보완하기 위해 PVA접착제를 사용하여 종이간의 결합을 증대시키고, 조형 소재로서의 견고성과 착용기능성을 증가시켰다. 넷째, 종이에 PVA 도포법을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견고성은 증가하는 반면 보관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질 재료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예술성을 겸비한 조형소재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현대의상에 있어서 다양한 종이소재의 개발과 과학적인 기법의 연구로 종이를 응용한 미술의상 디자인에 있어서의 예술성과 더불어 실용성이 증대되기를 바란다.

(접수: 2005년 4월 4일)

【참 고 문 헌】

- 고창균, 「입체조형」, 서울: 조형사
-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회(1995), 「국제 미술 의상전 도록」, 광주
- 국립 민속 박물관(2003), 「생활 속에 담긴 우리 옷의 발자취」 서울: 신유문화사
- 권상구(2000), 「예술과 디자인을 위한 표현기법」
- 권명광, 「바우하우스」, 서울: 미진사
- 김종태(1990), 「한국 수공예 미술」, 서울: 애경산업사
- 김창식(1961), 「제지한국」 No.38 제지공업연합회
- 김춘일, 박남희(1991), 「조형의 기초와 분석」, 서울: 미진사
- 노윤선(1994), 「콜라주(Collage)를 응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 덕성여자대학교 박물관도록 1(1988), 「한국의 지공예」 서울: 덕성여대 박물관

어흥규(1973), 「韓國史小考」, 서울: 국립 중앙 도서관

H. W. Janson(1978), 「History of Art」 김윤수 (역) 서울: 삼성출판사

이성순(1986), 「미술의상Art to Wear」 국민대학교 조형논총 제 9집

장윤호(1984), 「공예재료학」서울: 창미서관

케이트 브루턴(1998), 「직물염색기법」이신자 (역) 서울: 도서출판 예경

Franz Zeier(1987), 「조형연습-Papier」권영걸, 김현중 (역) 서울: 대우출판사

The Study of Art Wear Applied PVA Coated Paper -With Paper Molding Technique as the Center Figure-

Dept. of Fashion Design, Ewha Woman Univ. **Kyung-Jin Le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yungwon Univ. **Jung-he Kim**

In the modern ages, new appearance various media was weakening the influence of paper-based media. However, the strength of paper-feeling in the field of formative arts was newly understood and then is becoming the instrument of expression method for formative art areas.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unique silhouette and formation through strengthening the practicality and aesthetical functions of paper with a paper-formation method, and then is applying these to costume design so that it is possible to create more than high value-added costume design-formation showing something unique.

First, the paper-formation method has a potential of allowing diversity due to unshaped format. Second, due to original property of paper, the bonding can enhance the coupling property between papers in order to double the practicality,

possibility of wearing and duration.

Third, the various paper-formation method can express from 2D to 3D freely thank to its new and unique silhouette related with human structure. it can be applied to dress design and realize the creative formation and material feeling.

Lastly, the effort of application to clothes with the property of paper will look out the possibility of new valuable material for the costume design.

in conclusion, I hope that the pursuit of unique formation of costume design through paper-formation method will be a key role enlarging its scale or area toward new valuable area of formation arts. Furthermore, more than uniqueness and practicality will be expended by the additional and complex study combining various paper-formation methods with new materials. That is my earnest desire.

Key words : Paper Molding, Materials, Folding, Paper-Marches